

## 내일의 춤꾼 내일의 예술가가 있는 HKJ

발행처 HKJ 한양대학교 예술학부 한국무용전공 편집장 김신아 편집부 문하연 박문희 전화 : 02-2290-1319 FAX : 02-2297-7746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산17번지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 rid.hanyang.ac.kr 2007년 1월 1일(월) 제6호

# 2007 또 다른 시작, 세계 속의 우리 춤



출처 : <http://blog.daum.net/idchin>

모진 찬바람을 맞으며 추위에 떨던 양상한 나무는 봄을 기다리며 그 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생명을 꽂 피우는 봄이 오듯이,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2006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

2007년 한양대학교 체육대학 한국무용파트가 예술학부 한국무용전공으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한양! 세계의 리더 우리 춤. 그 또 다른 시작!

명예로운 자부심과 찬란한 이름 속에

설레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두터운 희망의 옷을 입고 힘차게 문을 열어봅니다.

<HKJ 편집부>



## 한양대 學友, 그 열정과 신명의 2006 춤 한마당

2006년 무용과 정기공연이 11월 14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1학년의 강령탈춤과 2학년, 3학년 여학생들의 창작춤 '蘭(란), 그 향에 취할지니...' 와 한국 무용파트 남학생 전체가 출연한 창작춤 '위험한 초대'가 무대에 올려졌다.

이번공연에서 1학년이 출연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춤 중의 하나인 강령탈 춤은 생음악에 맞추어 춤도 추고 직접 노래와 대사를 외어 불러 관객들의 많은 호

응을 얻었다. 여학생들로만 이루어진 창작춤 '蘭(란), 그 향에 취할지니...'는 한영 숙류 태평무를 창작화한 작품으로 여성들의 이름다운 곡선미와 우아미가 그대로 듣보였고, 남학생들로만 이루어진 창작무 '위험한 초대'에서는 남성들의 강단하고 역동적인 춤사위가 유감없이 펼쳐져, 그 어느 해 보다도 열정적이고 신명나는 무대가 되었다.

〈김신아 95〉



〈강령 탈춤〉



〈위험한 초대〉



〈蘭, 그향에 취할지니...〉



〈2006 최승희 춤 축제 '호성(虎聲)' 공연 11월 15~16일〉



〈정기공연 끝나고 다함께...〉



〈광화문 댄스 페스티벌 '9월 풍정' 공연 9월 26일〉

### '신인 안무가전 안무상 수상'



〈이영리 01〉

저에게 2006년 한해는 무용홀에서 흘린 땀과 노력, 그리고 그 결실로 기억됩니다.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존경하는 김윤미 교수님과 마치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선배님, 동기, 후배들, 한양이라는 든든한 나무 그늘 아래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머리숙여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넉넉한 마음으로 다독여 주시며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춤에 정진하는 것 뿐입니다. 미음깊이 새기고 처음 그 모습처럼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한 해, 모든 분들께 사랑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 신인 안무가전 '순대지 마시오' 12월 12일(화) 청우포스트극장〉

### '동아 무용콩쿠르 금상 수상'



〈김윤희 02〉

어느새 무용을 시작한지 16년이 다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던 동아무용콩쿠르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설레고 긴장되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하여 학교생활에 입하면서 동시에 무용 콩쿨을 준비하기에는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승지인 김윤미 교수님과 또한 여러 지도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도움들을 통하여 견뎌낼 수 있었고 지금의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좌우명은 '어떻게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그저 단 하나입니다. '계을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좌우명입니다. 저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했던 많은 연습들을 통해 콩쿠르 당일 날까지 두려움에 떨지 않고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무용인들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체적 조건 등 많은 것을 제한요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키를 가진 저로서는 그러한 편견을 깰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동아무용콩쿠르를 통해 한양대학교 한국무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큰 기쁨은 곧 저 자신에게 내려진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후배들에게도 학교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무용에 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또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양예술 'Big5 En'의 고품격 브랜드를 향하여



〈신일수 학부장〉

2007 무용학과와 연극영화과가 예술학부로써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다. 예술학부의 '또다른 시작'에 의미있는 일거름이 되고자 본교 신일수 학부장을 찾아보았다.

Q. 이번 해 무용학과와 연극영화과가 예술학부로 통합하는데 이에 대한 학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발전 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 1960년에 창설된 영화과는 1968년 연극영화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1964년에 창설된 무용과와 2006년 2학기에 새롭게 출발한 예술학부의 모태입니다. 현재 국내 대학 가운데 선두주자로서 공연 예술계와 영화계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 배출하여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 학생, 동문이 삼위일체가 되어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공유함은 물론 단계적 발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금심과 경쟁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명문 예술학부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고, 40년 이 넘은 전통의 선두주자로서 잠재력을 가진 역사가 있으니 최선을 다 하여 세계적인 명문으로 기약하는 목표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전이 아니고, 5년.. 10년.. 차 꾸준히 그 길을 향해서 나아야 합니다. 전국 50여개의 전공 예술학과가 모두 똑같을 수는 없듯 한양 예술 학부만의 고급 브랜드가 나와야 합니다. 이에 따라 후발 학교에 서도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두주자에 만족해선 안 되고 다시 한 번 하리띠는 선두주자에 만족해선 안 되고 다시 한 번 하리띠는 플라매고 브랜드 창출을 위해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 학부는 먼저 기초예술교육에 역점을 두고 감성, 인성, 지성을 고루 갖춘 전인 교육과 한양대학교의 실용학제로 적합하고 적중한 인재양성에 목표를 둘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그 질을 높이고 연구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구포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술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이론 분야와 그 실천을 전 강조하는 현장 실무분야를 염두하게 구분함으로써 전 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분야 간 상호공존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 학부의 설정 목표로서 'Big 5 En' 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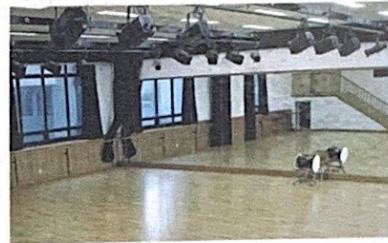
1. 책임있어 노력하고 시도하는 의미의 Endeavor
2. 항상 미래를 지향하며 상상하고 계획하는 의미의 Envision
3. 언제나 힘차고 충만 된 Energy
4. 친의력과 아이디어 넘치는 Environment
5. 다양한 예술분야를 접목·통합하여 미래지향적인 예술 활동을 선도하는 Enterprise

- 학부생 개인이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폭넓게, 장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는 이를 위하여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 무용을 하는 학생들의 학년 당 40명 중에서 10%는 무용을 주 전공으로 하고 있지만 무용보다는 기획, 흥보, 마케팅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의 발전을 위하여, 1,2학년 때는 기초과목을 수행하도록 하고, 3,4학년이 되어서는 경영

대학과 연계프로그램, 신방과에서 홍보를 배우는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전문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바의 분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현재 아무리 좋을 작품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기획 홍보 분야에서는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 학생 이외에 무용전공자를 중심으로 무용 조명 분야가 연극 쪽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극 전공 학생 이외에 무용전공자를 중심으로 무용 조명에 관심이 있어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

다. 이를 위해 상호 연관성 교과목을 개발하여 교과목들을 편성함으로써 무용전공자들도 배우게 하여 학생의 리드가 무엇인지를 교육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21세기 문화 세계에서 준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과목이 자체 위원회에서 교수, 학생 대표들과 논의가 되어 많은 발전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축무용홀 내축화면〉

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축무용홀 외축화면〉

Q. 학장님께서도 무용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용에 대한 학장님의 생각과 무용과 연극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A. 어떠한 면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연극보다는 무용이 자연적·인간적 형태의 모습을 통해서 언어가 사용되지 않은 시기부터 시작하여 가장 먼저 생성된 예술이라고 봅니다. 연극은 언어가 생성되고부터 활발히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는 비언어와 언어의 조화로 무용 안에 연극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연극 안에 무용 적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만큼 연극과 무용은 서로에게 그 안에서 꿈틀거리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고 봅니다.

Q. 학장님의 학창 시절을 통해서 저희 학생들에게 당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저는 학창시절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시도 쓰면서 어느 날 연극을 통해 그 매력을 흡뻑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연극이 곧 삶의 일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연극이란 함께 하는 작업, 공동의 작업이라는 부분에서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용도 연극과 미친가지라고 봅니다. 공동의 작업으로써 연극과 무용이 어우러진다면 아마도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 현재 한국은 아직까지 자신의 주 전공 이외에 부전공에게는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큰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배타적 성격을 버리고 연극과 무용을 공통으로 생각하여 보다 큰 사고와 안목으로 실천 가능한 것들을 이루어 새롭게 태어나 예술학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Q. 예술학부로 통합되면서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이 서로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술학부로서 좀 더 기꺼이 기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학부교수, 학생 중심의 열린 운영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되 그에 따른 의무도 강화 시킬 것입니다.

- 신학년도가 되니까 가능하면, 주별, 월별, 모임을 활성화하여 학부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와 관계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요구하는 비틀'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 입니다. 이제는 일종의 통보식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모임에서 학부장과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 Arts Go!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소통창구 마련을 준비 중입니다.

- 한양 예술제를 설립할 계획이고, 교수 제자의 학부공연과 학생 동문공연을 할 계획인데 학생들의 공연에서 연극과 무용을 함께 할 생각이고, 앞으로 차근 차근 하나씩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예술학부 시상식을 만들 예정입니다. 1년을 마무리 하면서, 학생들에게 상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와 시상식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더불어 교수와 학생들이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극단 예술감독 '2006 오이디푸스 The Man'〉 〈문하연(03) 이수민(06)〉

## 뻗어나가는 ‘우리춤 연구소’

2005년 3월에 발족한 ‘우리춤 연구소’는 우리춤의 연구를 위해 학제간 통합연구를 꾀하며 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춤의 연수와 발표를 함께하는 대학교 부설 최초의 우리춤 연구기관이다. 우리춤을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 탐구와 아울러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세계민방에 널리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춤연구소의 주진과제는 학문적 연구와 그 연구를 체험하도록 길을 제시해주는 교육의 장, 그리고 그 교육이 현실로 표출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공연 등이다. 특히 우리춤 연구를 통한 한국인의 정체성 탐구는 학제간의 통합연구를 통해 다양한 문화사업에 스스로 활용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인지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우리춤의 연구를 통해 사회적 요구를 현실화하여 다양한 무형문화적 가치까지 산출하는데 기여한다.



(2006년 8월 22일(화) 우리춤 연구소 개소식)

## 우리의 춤을 세계로

### “부채춤을 인도에...”



이수진  
(독어독문과 05학번)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독어독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진입니다.

지난 8월 한양대학교 봉사단에서 10명의 학우들이 인도로 해외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인도 동남부에 자리한 ‘onden cheli’라는 곳으로 지난 2004년 쓰나미로 인한 피해지역을 복구를 위해 사랑의 짐짓기 ‘해비터트’를 다녀왔습니다.

10명의 대원은 태권도, 사물놀이, 검도, 한국무용 등 특별한 재주가 있는 친구들로 처음부터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인도로 가기 전까지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문화 교류 활동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제가 맡은 분야는 한국무용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한때는 한국무용을 배우며 전통 무용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일본 대학교 교환프로그램을 갔을 때에도 한국무용을 선보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저를 포함한 여 학우 5명에 대한 군무(群舞)를 만들어야 하기에 고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양대학교 우리 춤 연구소의 방학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인 걸 잘 알기에 많은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춤 연구소의 김운미 교수님께서는 문화교류를 한다는 우리의 취지를 높게 평가해 주셨고, 한 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문화, 우리 춤을 알리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선뜻 우리 5명의 부채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그 말을 전해들은 친구们都 모두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며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비가 양수같이 내리던 여름방학, 우리 춤 연구소의 도움으로 저희 여자 대원들은 일주일간의 연습 끝에 부채춤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무용을 처음 해보는 친구들에게 한국무용 기본자세부터 알려주셨고, 부채를 잘 다루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전용자들도 기암 실수할 때도 있다면서 격려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표정이나 손글씨에서도 아미추어인 우리들에게 신경을 써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에 감동하여 모두들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출국하기 일주일 전 작품연습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몸 건강이 잘 다녀오고 부채춤도 예쁘게 잘 끝내서 우리 춤을 잘 알리고 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힘겨웠던 봉사의 기간을



마치고, 마을 주민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그동안 준비한 단소집주, 폭지점 댄스, 태권도, 부채춤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똑같이 맞춰 입은 한복과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신 무대화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문화를 알리는 길이 좋은 일입니다. 도와주신 우리춤 연구소와 그 외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우리의 춤을 중국 상해에”



최아영  
(무용과 03학번)

한양대 글로벌 봉사단이 7월에 중국 상해에 다녀왔다. 여기에 본교의 학생 11명이 한 과목씩 맡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한국무용파트 최아영(03)이 소고춤으로 우리의 춤과 문화를 중국에 널리 알리고 왔다.

2006년 7월 3일~7월 14일

### 우리춤 체험프로그램

매년 하계방학을 맞이할 때면 우리춤 연구소에서는 외국인과 일반인들에게 우리의 춤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006년에는 소고춤, 부채춤, 교방굿거리를 강습하였는데 우리춤을 체험하게 된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기뻐하였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우리춤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하며, 다음해에도 꼭 등록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하계 우리춤 체험프로그램 강습)

2006년 10월 11일(화) 세계무형문화유산

### “곤극 연기술” Workshop

중국 전통극의 백미라 할 ‘곤극’에서 어떻게 그들의 소리와 몸을 활용하여 고도로 양식화된 연기술을 확립하고 관객과 소통하는지, 또 그러한 양식화된 연기의 미학적 기초는 어디에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는데 목적 둔 워크샵이 우리춤 연구소와 종문화 BK 사업팀 수행인문학특성화사업단 주최로 한양대학교 체육대학 한양예술극장에서 개최되었다.



(workshop를 마치고)

2006년 11월 8일(수)

### 강강술래를 배워보자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의 언어연수생들 대상으로 강강술래를 강습하였다.



(강강술래 강습)

안녕하세요. 전 2002년도 졸업생 이주연입니다.

우선 저는 본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일본 동경의 재경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수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전 유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

만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전공을 바꾸어서 대학원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이유가 유학을 쉽사리 실행에 옮기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유학 중인 여러 지인들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어느 곳이 내게 맞을지, 혹은 도움이 될지를 열심히 리서치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라는 전공을 계속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쪽도 좋긴 하지만, 노인복지에 일가견이 있는 일본이 그 어느 곳보다 매력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유학준비와 직접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정해진 정답을 알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먼저 유학을 경험한 선배로써 제가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편하게 알려드리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그 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후회했던 부분들, ‘이건 내가 정말 잘 선택했던 것 같다.’라고 장점으로 들 수 있는 케이스들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학준비는 우선 많은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일본을 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제 전공을 살려 공부할 만한 가장 좋은 학교와 교육시설이 어느 쪽에 있는지, 가격과 생활 조건은 어떠한지 등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이렇게 리서치를 하는 기간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길면 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수집한 자료로 떠나는 유학은 효율성도 없을뿐더러, 맘에 들지 않거나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라면 그 때 가서 비구기에는 모든 것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건 시간도, 그리고 돈도 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여러분들은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혹은 일본이나 아시아 국가를 가든 최대한 많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그 곳에 가서 이루어야 할 목표(전공)는 무엇인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

## ‘유학! 그 꿈과 이상’

### 이주연

(98학번, 現)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한 효과적 교육 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빨리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학을 기기로 마음을 정하셨다면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리서치를 준비하여,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유학갈 곳의 나라 언어는 최대한 철저히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유학을 기기 전, 6개월 정도 현지에서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언어는 습득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대학원에 입학하고, 그 곳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좀 더 많은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유학을 준비하시면서, 어학 쪽을 효과적으로 배우셨으면 합니다.

일본이나 외국의 경우 대학원은 들어가고 싶은 의미만 확실하다면 대학원에 입학 할 수 있는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국의 경우에도 외국인 학생은 뽑을 때, 약간의 특혜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대다수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의 대학원에 전공시험과 토플, 면접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 중 제일 중요한 건 면접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연구에 대한 의지, 하고 싶은 것(연구계획)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작화된 과정을 지도교수와 학교에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세이를 잘 쓰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후배님들에게 그 무엇보다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성적입니다. 학부성적은 정말 평생을 따라 다닙니다. 물론 학부성적이 전부는 아니지만 유학생생활을 할 때 있어 학부성적이 좋으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면접관 혹은 내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교에서도 이 학생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전공에는 어느 정도의 흥미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바로 학부성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현재 학부 공부에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어입니다. 학부 성적처럼 어느 나라를 가든 공인성적은 따라 다릅니다.

다. 저 또한 유학을 준비하면서 ‘학부 때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토익이다, 토플이다, 너무도 많은 학원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영어 공인성적을 꼭 따 놓으시길 바랍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유학비용을 걱정하고 계실 것 같네요. 물론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각 대학마다, 외국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너무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인 학생들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등록금을 내고 다녔죠.

장학금을 받는 데 있어서도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장학금을 관리하는 사무실이 각 학교마다 있습니다. 그 곳에 자주 들려서 학교의 외부나 내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잘 체크하시고, 무조건 다 신청을 하세요. 그럼 한 번에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는 행운을 얻으실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부지런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죠 만약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언어를 배우는데 있어서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일본에 있으면서 느낀 건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소중함이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타지에 있다 보니 한국이 정말 많이 그리워지더군요. 일본인들은 자기 나라의 전통문화에 대해 대단한 자긍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못지 않게,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문화들이 더 많은데, 왜 그것을 좀 더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전통 무용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세요. 이는 유학생생활에서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학을 가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곳 사람들, 예술, 문화, 가족에 대한 사랑 등등 다른 부분들도 많이 배워 오세요. 아마 유학생들이 내내 소중해 지실 겁니다.

타지에 혼자 떨어져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것이 절대 쉽지는 않지만, 그 어려움만큼 값진 것들을 많이 얻고 돌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후배님들! ‘나는 아래서 안 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먼저 하지 마세요. 뚜렷한 목표와 계획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유학생생활에서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신아 95〉

### 고 물을 마신다.

만일 잘 낫지 않으면 육미 밥과 반찬을 짜게 먹으면서 몸을 아주 따뜻하게 하면 바로 좋아진다.

### ⑥ 무를 관절의 병

단맛의 음식을 먹으면 좋아진다. 꿀차를 달고 따끈하게 한 잔 마시거나 흑설탕을 밤술가락으로 들판 3~5술 정도 타서 따끈하게 한 컵 마시고, 무릎을 천천히 돌리든지 굽혔다 해 보면 금세 통증이 멎고 가뿐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평소에 흑설탕물이나 생강차를 달고 맵게 하루 3번 마시고 단맛 음식으로 기장, 찹쌀밥을 해 먹고, 소뼈곰국이나 생선매운탕, 오징어매운탕을 자주 먹으며 허박, 감, 대추, 고구마, 연근, 사탕 등을 많이 섭취하면 무릎 관절은 오래지 않아 좋아진다.

식사 중간에 출출하면 생강차나 흑설탕물을 마신다.

출처 : <http://www.taegummarathon.co.kr>  
관절염에 좋은 음식

〈문하연 03·이수민 06〉

## 무용수의 몸

### 무용수의 맞춤 식이요법 알아두면 좋다!

#### ① 꿀꿀치에 좋은 음식

쓴맛의 음식을 먹으면 좋아진다.

3잔 분량의 커피를 한 잔에 만들어

마시고 팔꿈치를 움직여 보면 즉시 풀린다.

#### ② 고관절, 목관절, 발가락관절의 병

신맛의 음식을 먹으면 좋아진다.

따뜻한 물에 식초를 시게 타서 흑설탕을 약간 넣고 천천히 마시거나, 레몬 한 개를 즙을 내어 따뜻한 차를 만들어 마시거나, 요구르트 2개에 식초를 타서 마신 뒤 고관절과 목 그리고 발을 둘러보면 곧 부드러워진다.

신맛 식품인 팥, 밀, 보리밥을 해 먹고, 닭고기 국에 야채를 넣고 끓여서 자주 먹으면 힘도 나고 통증이 없어지며 부드러워진다.

#### ③ 어깨 관절과 손기락 관절의 병

떫고 달백한 음식을 먹으면 좋아진다.

골고루 육미를 섭취하되 떫고 달백한 식품인 육수수, 녹두, 조밥을 해 먹고 양고기, 오리고기, 번

데기, 감자, 버섯, 양배추, 토란, 품나물 등을 주로 많이 먹으면 빨리 좋아진다. 어깨 관절이 많이 아프거나 손기락 관절염이 심할 때는 육미 생식을 하는 것이 증상을 빨리 호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생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육미 밥을 먹는 것이 치료에 좋다.

음료로는 요구르트를 따뜻하게 대위 하루 3개 이상 마신다.

생식을 먹으면 손글까지 에너지가 많아 기므로 빠른 효험을 볼 수 있다.

#### ④ 손목 관절의 병

매운맛의 음식을 먹으면 좋아진다.

생강차 2봉을 달고 맵게 해서 하루 3번 정도 마시면 일시적인 증상은 곧 좋

아진다. 매운 식품으로 현미, 밀무, 찹쌀밥을 해 먹고 소고기, 생선, 고추장, 마늘, 양파는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먹으면 호전된다. 증상이 없어지면 매운 맛을 줄이고 육미를 골고루 섭취한다.

#### ⑤ 발목 관절의 병

짠맛의 음식을 먹으면 좋아진다.

일시적으로 아프거나 발목을 심하게 빠였을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소금 2차 숟갈을 조금씩 나누어 천천히 먹고 잠시 후 발목을 움직여 보면 한결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다.

검정콩밥과 채지고기 빠를 푹 삶아서 먹든지 삼겹살에 된장을 짭짤하게 자주 먹되, 식사 후 갈증이 나도록 짜게 먹

# “소리와 움직임은 하나다”



서울대학교 작곡과 졸업, 現 한양대학교, 극동대학교, 예술의 전당 음악 아카데미 출강.

대표작 - 〈숨은 물〉, 〈에쿠우스〉, 〈누구리도 그러하듯이-김운미 안무〉, 〈매창-김현자 안무〉, 〈퇴마록〉, 〈악속〉, 〈리베라매〉 외 다수.

무용과 음악, 이제 더 이상 예술로서의 다른 두 분야로 독립적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종합예술로서의 양상을 띠는 음악과 무용, 이 두 분야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하나의 예술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음악이 없는 무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무용에 있어서 음악은 매우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는 보다 나은 예술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무용과 음악과의 관계,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음악이 강은구 선생님을 모시고 무용과 음악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 평소에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질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Q. 음악을 전공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중학교 3학년 때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고 음악이 하고 싶어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원래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노래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고 꾸준히 해서 서울대 작곡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음악이 너무 좋아서 시작했기 때문에 음악을 전공한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고 언제나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Q. 무용음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무용음악으로 첫 작품은 김운미 교수님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이다. 군대 제대 후 김운미 교수님께서 학교 선배에게 음악을 의뢰했는데 선배가 유학을 가서 내가 대신 맡게 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지금까

지 많은 무용음악을 작곡하게 되었다. 한양대학교와의 인연은 무용음악 작곡의 시발점이자 동기이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Q. 무용음악 뿐 아니라 연극이나 영화음악 등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는데 무용음악이 타 음악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음악은 움직이지 않으면 소리가 날 수 없고, 무용 또한 움직이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다. 즉, 무용과 음악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연극에서 음악은 무용과 음악의 관계와 달리 선택 사항이다. 무용은 음악이라는 본질 자체를 필요로 하지만 연극음악은 연극의 극적효과를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Q. 무용작품에서 무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음악과 연결 지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음도 음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음악의 최고 경지가 무음이다. 최고의 경지를 못 느끼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무음도 음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생각이나 느낌이 없으면 음악이라고 볼 수 없다.

Q. 안무기는 작품을 안무할 때 음악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서 영감을 얻으며 어떻게 창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춤을 보면 자연스럽게 영감이 퍼오른다. 또 안무가의 의도를 잘 이해하려고 한다. 안무가의 의도와 내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지만 생각을 공유하면서 안무 가를 살피시키고 자연스럽게 조절한다. 대부분의 작품은 한 시간 기준으로 음악을 완성하는데 6개월 넘게 걸릴 정도로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투자한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Q. 일반적으로 작품을 안무할 때 음악을 먼저 선정하고 안무하는데 이러한 순서는 움직임에 따라가게 되어 주제를 벗어나거나 쉽다 하여 동작 완성 후에 음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움직임과 음악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A. 두 방법은 궁극적 차이는 없으나 과정상의 차이

는 있다. 대부분이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고, 극적인 표현을 할 때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연함을 가지고 음악과 움직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안무를 할 때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 놓는 것은 좋지 않다. 음악이 너무 크면 음악만 따라가게 되어 안무에 방해를 줄 수도 있다.

Q. 현재 무용계에서는 움직임에 있어서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음악에 있어서도 팝송, 재즈, 기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창작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창작자가 나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 때는 기본음악에 충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기본기는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주므로 실험적인 음악보다 기본음악을 쓰는 것이 좋은 것 같다.

## • 강은구 선생님의 조언 - 음악 선정 시 유의해야 할 점

1. 너무 유명한 음악은 쓰지 마라.  
쉬운 음악은 쉬운 춤을 만들며, 유명한 음악은 음악에 따라가게 되어 안무의 한계가 있다.
2. 지나치게 좋은 음악은 쓰지 마라.  
나의 실력, 안무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좋은 음악을 쓰는 것은 마치 시장아줌마가 앙드레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3. 대중음악을 쓸 때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  
자기만의 컨셉이 있어야 남의 음악이 아닌 작품에 맞는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4. 음악을 많이 듣고 사랑하라.

〈박문희 04〉

## 우리들의 言

### “공연예술의 대중화를 위하여”



일시 : 2006년 12월 8일  
참석자 : 조성우(연영02), 박찬민(정통05)  
하민진(무용05), 김민조(무용05)  
박문희(무용04)

Q. 공연예술이라는 것이 예술성에 치우치면 대중성이 없다 하고, 대중성을 높이면 그 공연이 예술로서의 질이 실상되었다고 하는데, 대중성과 예술성 중 어떤 것 이 실상되었다고 하는데, 대중성과 예술성 중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사회에 들어와 우리는 점차 문화, 예술이 발전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발전하는 문화, 예술에 비하여 공연예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왜 공연 예술은 대중성이 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예술성의 입장과 대중성의 입장에서 각각의 입장만을 표명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술인과 대중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개선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조성우(이하 조) : 대중성과 예술성 중 무엇을 먼저 추구하느냐는 매우 어렵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대중성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공연은 관객과의 소통이 우선이므로 소통이 없는 공연은 예술성 면에서도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민진(이하 하) : 공연예술에서 대중성과 예술성

은 모두 중요한 개념이다. 하지만 예술성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김민조(이하 김) : 꼭 추상적이어야만 예술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술성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다. 공연에서 예술성을 더 중요시한다면 대중성을 가지기 어렵다.

박찬민(이하 박) : 대중성이 강하다고 예술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 적용되는 말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대중성이 바탕이 될 때 예술성이 있지 않을까?

박문희(이하 박) : 대중성을 인식하다보면 작품을 표현하는데 있어 한계가 뒤파른다. 이는 창작자의 발전에 해가 될 수 있으며, 공연예술의 발전 또한 느리게 할 것이다. 먼저 예술성을 추구하고 대중들의 이해를 돋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8면에 계속〉

## 〈면에 이어〉

Q. 그렇다면 예술성과 대중성을 절충하는 방법은?

하 : 예술, 문화에 대한 이론이 초, 중, 고등학교에도 전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할 것이고, 공연예술의 대중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 : '하'의 의견에 동의한다. 예술에도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과정인 것 같아 안타깝다. 초등학교는 특기 성적 교육이 활성화되어 예능을 조금 배울 수 있지만 중, 고등학생은 문화, 예술에 문외한이 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예술에 대한 교육으로 공연관람을 하거나 예술에 대한 이론을 가르친다면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공연예술이 대중성을 가지고, 관객의 수준이 높아져서 작품의 예술성 또한 질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 : 무용작품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다. 무용은 신체를 통한 표현이기 때문에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의상,

음악, 무대 장치 등의 부수적인 요소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절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찬 : 쉽고 대중적인 작품의 많은 공급이 대중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조 : 공연예술에 관심 없는 대다수의 대중에게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흥미 있는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Q. 공연 예술에 대해서 '어렵다', '추상적이다', '전공자들만 위한 자리',라는 고정관념이 공연예술의 대중화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중들의 이러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방안과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조 : 뮤지컬은 공연예술이지만 대중성이 절은 편이다. 뮤지컬처럼 흥미 있는 작품을 전파시킨다면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하 : 대중들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쉽지 않다. 예술가들이 먼저 다가서야 한다. 예를 들어 공연에 해설자를 두어 작품의 이해를 쉽게 하는 것도 좋은 방

법일 것 같다.

박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로 대중들에게 공연예술에 대해 익숙함을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Q. 공연예술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하 : 재정적인 어려움은 공연예술의 발전을 뒤쳐지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관심이 필요하며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 : 국가의 지원이 불충분하다면 기업의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기업의 지원을 받고 팝플랫이나 현수막에 기업의 광고를 실거나, 지원 받은 기업에 공연 티켓을 배부하여 공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Q. 관객의 입장에서는 고가의 티켓 값으로 인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점도 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

하 : 공연예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티켓 값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가의 티켓 값은 대중화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박 : '사랑티켓'과 같은 마케팅을 해서 관객들이 조금이라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야 한다.

김 : 고가의 티켓이라도 뮤지컬이나 유명가수의 콘서트는 매진이 흔하다. 티켓 값을 낮추는 것보다 작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유명 인사를 통한 홍보효과로 관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 : 좌담을 통해 공연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예술가와 비예술가가 풀어나기야 할 과제'에 대해 모색해 보았습니다. 예술가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대중들의 인식변화, 그리고 국가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공연예술의 대중화는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 밝게 전망합니다.

좌담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운미 교수 소식



2006년에도 매우 바쁘게 달려오신 김운미 교수님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시는 법이 없다.

호주 투umbi, Empire Theater에서 공연한 문예진흥기금 해외교류 지원

사업 '한양의 춤, 그리고 신명'과 북간 여덟 번째 '자연'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냈으며 공연활동으로 인한 꽤 짜여진 일정 속에서도 우리 춤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학술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다. 이 바쁜 가운데 학생지도에 늘 열정적인 모습에서 진정 교육자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2007년에도 김운미 교수님의 일정은 꽉 치웠다. 그 중 가장 주목할 것은 2월에 School of music and dance university of Oregon 초청 학교 간 교류가 계획되어져 있다.

세계 속에 우리 춤, 우리 춤의 세계화를 위한 김운미교수님의 노력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 진다.

## 편집후기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06년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시작, 세계 속의 우리 춤'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 속에 한양 우리 춤 신문은 2007년 희망의 종소리를 울립니다!!

이번 6호 신문 또한 고된 제작 과정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노력의 힘방울이 모아져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열정과 자부심이 깃든 만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담과 걱정도 따랐습니다. 허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의 격려와 응원의 힘, 소중한 경험과 깊진 노력이 영광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는 하나라는 데 깊은 뜻이 있고 모두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이었던 나눔과 공감을 통해 한양 우리 춤의 친란한 결실을 기쁨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우리나라 뿐 만아니라 세계의 중심에서 진정한 예술인의 터전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보이지 않게 도움주신 선배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편집장 : 김신아

편집부 : 문하연 박문화 오대원  
김민조 하민진 이수민

## 송사 “한양인의 한 사람으로”

## 02학번 윤수경

졸업을 앞둔 이 시간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부푼 설레임과 과연 4년 동안 한양인으로써 자기실현에 진실했었는지 또 스스로 한양인 이기를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살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네요.

처음 한양대에 학격을 하고 기뻤던 마음도 잠시 고된 새벽레슨으로 시작하자면서 낯선 환경에 부닥쳐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일들 조차도 서운하고 아쉽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몸을 움직였지만 지금은 최소한 나의 움직임에 대한 책임과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까지 교수님과 선배님 후배님들이 우리 곁을 함께 해주셨기에 값진 배움을 가슴에 안고 또 한 계단을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2학번이었지만 03학번 후배들과 친구같이 또는 자매같이 보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따뜻한 앨범으로 담아 가게 되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될 것 입니다.

곧은 부드럽고 온유하지만 속은 굳은 신념과 강한의지를 지녔던 저와 03학번 후배들은 앞으로 더 큰 날개를 달고 멋진 여성으로 되리라 믿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만큼 이제는 사회에서 학교로 힘을 보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어깨가 무겁지만 자랑스러운 한양대 무용과 졸업생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벽도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에게 있어 한양대에 대한 자부심은 제 인생에 튼튼한 베풀목이 되어주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 당당히 최선을 다하는 한양인의 한 사람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 도 | 움 | 주 | 신 | 봄

## 감사합니다

## 이종익 동문(93)

## 투고글을 받습니다.

한양동문들의 나누고 싶은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카페 : cafe.daum.net/loveHKJ

홈페이지 : rid.hanyang.ac.kr

E-mail : sina0120@hanmail.net